

# 진안 발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총력

### 전춘성 군수, 기재부 방문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 예산반영 적극 요청

전춘성 진안군수는 4일 국회 예산 확보를 위한 광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 군수는 지난달 15일에 이어 4일에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김완섭 예산실장,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등과 면담을 갖고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진안을 마이산북부 일원에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곤충 사육기반, 공동집하·가공 및 유통·판매 통합지원을 위한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다. 군은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관로확보 등을 위해 14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4월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분석 용역을 완료한 상황으로 전 군수는 곤충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

또한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용담호를 활용한 생태체험과 지역 농촌문화를 기반으로 국가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담호는 전북지역 150만명 생활용수를 책임지는 상수원댐이지만 많은

규제와 제약속에서도 진안군민의 피땀 어린 수집자율관리제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도모를 위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 신청한 만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전춘성 군수는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진안군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향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전복도 및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코로나 선제적 방역활동 강화

### 공공기관 자율방역 체계 재정비

진안군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율방역 강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 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내에서도 지난 2일 7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계속해서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다.

진안군은 먼저 군청 등 공공기관에서 자율방역 체계를 재정비하고, 강화

해 나가며 더 나아가 유관기관과 종교 시설 그리고 대중음식점 등 민간으로 전파하여 자율방역 강화를 권고·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인 군청과 의회,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출입구에 기존에 설치 운용했던 열화상 카메라를 재설치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방문자가 스스로 체온을 체크하고 손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체육시설과 박물관 및 체험관, 위탁시설 등에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발열체크와 손소독 실시 등 자율방역을 강화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자율방역 선제적 강화가 계속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확산세를 억제하고 진정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내 유관기관은 물론 나아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협조와 군민들의 실내마스크 착용 등 자율방역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율방역 강화에 나선다.

# 무주군,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수요자 발굴

무주군은 오는 1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해 연탄쿠폰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존재하며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의 수요 발굴 취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

층 중 연탄보일러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가구 당 지원액은 총 신청인에 따라 변경되며, 사업 대상자에게 실물 카드형 쿠폰을 통해 지원한다.

신청은 대상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오는 1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쿠폰 사용 기간은 동절기인 오

는 10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한 세대에 다수의 연탄쿠폰(카드) 지원 대상이 거주하더라도 지원 대상수에 관계없이 가구(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단위)당 1명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사용하는 경우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추진

### 장수군, 주요 도로 살수차량·무더위쉼터 지속 운영

장수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도로 살수차량 운영, 무더위쉼터 지속 운영 등 폭염 대비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철이 지난 후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단에 한반도를 점유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

이에 장수군은 아열근로자, 논밭작업자, 취약계층 등 여름철 취약분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군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읍·

면 시가지 주요도로에 살수차량을 운영해 폭염특보 발효시 1일 2회 이상 살수차량을 운영하며, 읍·면사무소 및 경로당 등 233개소에 냉방기를 가동해 무더위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후식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살수차 운영 등 폭염대책을 확대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군민들께서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한낮에는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은 4일 대회의실에서 김희옥 부군수 주재하에 2022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 무주군, 지자체합동평가 점검 보고회 가져

무주군은 4일 대회의실에서 김희옥 부군수 주재하에 2022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지자체합동평가 정량 지표 담당부서의 지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표별 애로사항 및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희옥 부군수는 "각 부서별로 지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내년도의 우수한 성적을 위해서는 각 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월 실적 등록 기한 준수와 임력한 실적을 증명할 증빙자료 등록 또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절차에도 역점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힐링은 진안고원에서, 치유는 마을축제에서'

진안군마을축제가 8월에도 다양한 테마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4일에는 백운면 두원마을에서 마을수호신인 당산나무에서 당산제를 시작으로 풍물공연과 떡메치기, 민속놀이 등을 진행한다.

또한 같은 날 백운면 석전마을에서는 '광주리 한가득 옥수수 축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주리 전시와 함께 마을에서 생산된 옥수수를 이용한 빵튀기 체험, 전통주 시음 등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오는 6일에는 씨없는 곱감으로 유명한 정천면 화동마을에서 물속 보물찾기와 다슬기 잡기, 감자삼삼 등 시원

한 계곡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계획이다.

같은 날 용담면 감동마을에서는 뗏목타기를 메인행사로 마을 앞 강변에서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며 진안을 대성마을에서는 '숲속 대성동마을 이야기'라는 주제를 갖고 마을과 고향을 주제로 한 그림 그리기와 마을주민공연(장구난타) 등 마을숲에서 펼쳐지는 축제가 열린다.

또한 성수면 중평마을에서는 옛 어르신이 행했던 대동두레를 시작으로 중평굿과 주당방아찰기 등의 재연도 이어져 어린이와 어른 모두 만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릴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추진

무주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무주군가족센터는 이날 무주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통해 고향방문을 앞둔 가정에게 필요한 교육과 안내, 코로나19 관련 여행수칙 등을 안내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은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 가정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돕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됐다.

올해는 33가정이 신청한 가운데 지난 7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베트남 9가정, 필리핀 1가정, 일본 1가정, 캄보디아 1가정 총 12가정이 선정됐으며, 각자의 고향나라로 모국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들 12가정은 모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보험료, 현지 체류,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가정은 8월부터 12월까지 자유롭게 고향방문을 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여름 휴가철 맞아 관광지 '호객행위' 엄단

무주군이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호객행위를 엄단한다.

무주구천동 등 관광지에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면서 청정 무주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4일 군에 따르면 무주구천동 등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구축을 위해 실시되는 식품·공공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오는 15일까지다. 특히 구천동관광특구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호객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친다.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장 점검반이 상주해 호객행위 근절과 이와 관련된 민원사항 발생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주요 호객행위 관련 단속사항으로는 도로 위 차량방해 등으로 이어지는 과도한 호객행위, 관광객과 이용객 등이 불쾌할 정도로 끌어 당기는 행위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